

장춘 부동산

# ‘외부 진출’로 활로 찾는다... 연길서 정밀 홍보

장춘시주택관리국의 지도 아래 장춘 부동산연합회는 봄철 상품주택 판촉월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장춘이 있어요’ 주, 시 도시 방문 시리즈 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의 첫 행사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연길시에서 열렸는데 2025년 장춘 부동산시장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진출’ 모식을 활용해 지역 협력 기제를 심화시켰다.

이번 활동의 핵심은 지역간 주택 구매 정밀 플랫폼 구축에 있으며 ‘B단(전문 사용자) 정밀 홍보 + C단(일반 소비자) 이미지 전시’라는 2원화 모식을 도입해 지역적 한계를 허물고 고객 지원 공유 및 효율적 전환을 실현했는바 이를 통해 장춘의 도시 이미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장춘의 우수한 주거 자원과 쾌적한 생활 비전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성도의 발전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협력상생의 발전 모식에 기여했다.

활동은 주민들의 주택 구매 수요에



맞춰 ‘중개업자 채널 심층 개발 + 시민 대상 이미지 홍보’ 전략을 혁신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연길시에서는 ‘우수 중개업자 영상 관람회’를 개최해 현지 중개업자들을 초청했다. 영상 관람을 통해 장춘의 좋은 주택을 홍보하고 정책 설명, 상담 계약 체결을 접목하여 정서적 뉴대감과 장기적인 판매 연합체를 구축하고 현지 중개업자의 전문적 장점을 활용해 ‘한명의 중개업자가 홍보하면 수백명이 혜택을 보는’ 효과를 실현했다.

도시 류동인구 특성에 맞춰 플래시몹 댄스, 소형 전시회, 상업시설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장춘의 주택을 연변대학, 서시장, 모아산풍경구, 연길공원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직접 소개하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활동 현장에서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장춘의 주택 정보와 주택 구매 보조금 정책을 설명하고 문의에 응답하며 구매 의향 정보를 수집해 장춘의 쾌적한 주거 이미지를

를 각인시켰다.

이번 활동은 기존 대규모 전시회 모식에서 벗어나 경량화된 도시 마케팅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한편 플래시몹, 영화 관람회, 소형 전시 등을 통해 장춘의 우량 주택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깊이 결합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홍보와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안내로 지속적인 상담과 방문 상담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류입, 온라인 전환’의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는 참여 비용을 절감하고 전파 효율을 높여 연길 주민들이 장춘을 쉽게 이해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봄철 상품주택 판촉월의 중요한 활동인 이번 행사는 시장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외부 진출을 통해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에서의 장춘의 핵심 지위를 강화하고 지역내 주택 소비 잠재력을 방출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길림일보

남방항공

## 새 시즌 항공편 확정... 길림성 32개 로선



2026년 여름-가을 시즌에 맞춰 중국남방항공의 새로운 항공편 계획이 공식 확정됨에 따라 중국남방항공길림분사(이하 ‘남방항공길림’)는 새로운 항선 최적화 작업에 들어갔다. 새 항공 시즌은 3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되는데 남방항공길림은 길림성에서 32개 로선을 운영, 국내외 31개 도시와의 항공로를 연결하여 총 2만 2,000회의 출도착 항공편이 예상된다. 남방항공길림은 정밀한 운항 능력 배분과 고빈도 로선 배치를 통해 길림을 전국으로 연결하여 동북아 항공 통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로선에서 남방항공길림은 남방항공그룹 3대 항공 허브인 광주, 북경, 우룸치의 로선망을 기반으로 려객 수요에 맞춘 간선 로선 운항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길림과 주요 경제권간의 항공 연결을 심화하고 장춘에서 상해 포동, 광주, 심수, 북경 대흥 등 로선의 운항 회수를 대폭 늘려 효율적이고 편리한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장춘-상해 포동 로선은 하루 6편으로 증편, 고빈도 항공 쾌속 로선을 형성하여 장강삼각주 국제 항

공 허브와의 매끄러운 연결을 실현한다. 장춘-광주 로선은 하루 5편, 장춘-심수 로선은 하루 4편을 운항하여 광둥-항항-오문 광역권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장춘-북경 대흥 로선은 하루 6편으로 증편되었으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고르게 배분하여 길림과 수도 경제권간의 출발 통로를 원활하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배치는 길림의 경제무역교류 및 문화관광 수요에 정확히 부합되는바 지역 협력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제 및 지역 로선 측면에서 남방항공길림은 동북아 핵심시장에 주력하여 지역 국제로선 구성을 최적화하고 대외개방을 위한 항공 교량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장춘-서울 로선은 하루 2편으로 증편되고 연길-서울 로선은 하루 1편을 유지하여 중한 경제무역 및 문화교류 채널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 로선 증편은 그룹의 국제 배치 속도와 일치한바 동북아 로선 허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중한 기업의 비즈니스 협상, 관광객 려행, 류학생 왕복에 더욱 유연한 이동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 / 길림일보

## 연길시 2026년 봄철부동산교역회 개막

24일, 연길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에서 주관한 연길시 2026년 봄철부동산교역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교역회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민생을 돌보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우수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 신뢰를 더욱 제고하고 실제 주택 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교역회에는 23개 부동산 개발 기업의 37개 부동산 프로젝트가 참여했는데 약 5,000세대의 주택과 270여개의 차고(주차자리)가 포함

되었다. 집중 전시 기간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였으며 장소는 연길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등기대청에 마련되었다.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 시장관리임대 전문반 책임자 황철동에 따르면 연길시는 이번 교역회에 3,000만원의 주택 구입 보조금을 투입했다. 보조금 정책 유효기간은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보조금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보조금 정책 유효기간내에 새로 짓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건축면적 기준으로

매 평방당 1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한세대당 최고 보조금 액수는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차고를 구입할 경우 한개당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부동산교역회 보조금 정책과 정부 부문에서 시행하는 다른 주택 구입 보조금 정책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데 주택 구입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등록비도 인하되었는데 이에 따라 새 차고의 경우 기존 비주택 기준(건

당 550원)에서 주택 기준(건당 80원)으로 등록 수수료가 조정되었다. 또한 행사 기간중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 등록비와 저당 등록비가 면제되어 두차례 등록 시 총 160원이 감면된다.

이번 교역회에서는 환급, 주택공적기금, 상업대출, 가전제품 할인 교체 등 민생 혜택 정책도 함께 시행되며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최대한 할인 혜택을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변넷

## 연변대학 경영자과정총동문회 8대 회장단 새롭게 출항

3월 21일, 연변대학 경영자과정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 년말 총회 및 회장 리취임식이 연길시 신라월드 호텔에서 있었다.

행사는 훈춘장 장학금 전달 활동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총동문회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현근, 현수현 등 17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학업에 정진해 사회에 유익한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총동문회 최선희 상무회장, 연변대학 MBA 중심 정군 상무부주임, 허호운 명예회장 등 사회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지며 대회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총동문회는 지난 한해 동안 기업 탐방을 통해 함께 회원 기업들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활로를 모색했으며 연변 TV 방송국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그

램 협찬, 취약계층 위문활동, 연변성 주체육운동학교 방문 등 다양한 애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눴다. 또한 운동회, 배구대회, 축구대회 등 다채로운 체육 행사들을 통해 회원간 화합과 우의를 다져왔다.

행사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총동문회 발전과 도약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애심활동에 앞장서 온 인사들을 표창하여 그간의 로고를 격려했다.

이날 리취임식에서는 총동문회 리덕봉 회장이 리임을 선포하고 김옥 회장이 새로 취임해 총동문회 바통을 이어받으며 8대 회장단이 새롭게 출항했다. 새 회장단은 총동문회의 발전적 계승과 혁신을 다짐하며 향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지역사회 굴지의 기업인 단체로 새 지평을 열어가 갈 타산이다. / 김명화기자

## 연길-울라지보스포크

### 직통 려객버스 곧 운영 재개

연길과 로씨야 울라지보스포크를 연결하는 국제 직통 려객운수 로선이 3월 30일 정식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이번 운영에 투입된 차량은 50~55인승 호화 버스로 려객들에게 넓고 쾌적한 승차감을 준다. 전 구간 운행시간은 약 6시간(구체적으로 통상구 통관 능률에 따라 변동), ‘1표 1차 1역’ 직통으로 중도에 환승할 필요가 없다.

해당 려객운수 로선은 매일 1회 운행되며 12시 40분에 연길 동북아 려객운수본역에서 출발한다. 훈춘을 경유할 경우에는 14시 55분에 훈춘

려객운수역에서 출발하고 울라지보스포크 이도하자 려객운수역에서는 9시 15분(북경시간)에 출발한다.

‘연길-훈춘-울라지보스포크’ 1인 편도료금은 170 원이고 단체료금은 인당 150 원이다.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요금 할인 정책을 실시하는데 편도 1인 요금은 150 원이고 단체료금은 인당 130 원이다.

이 국제 직통 려객운수 로선의 운영 재개는 로씨야 상업무역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려객들에게 더욱 경제적이고 편리한 출행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연변뉴스넷

